

2002년 4월 27일

---

## 노무현 후보 서울경선 연설

노풍은 이번도 들풍도 아닌 정치 혁명입니다.

이회창 대세론은 이제 물거품이 됐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위대한 혁명은 바로 이 자리 모인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민주당의 정치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주신 당의 중진 여러분들과 흔쾌히 국민경선에 참여하신 민주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기적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노풍은 거품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 마치 하나님께서 개입한 것처럼, 마치 천지 신명의 음모가 있었던 것처럼 한 분 한 분 참여를 통해 민주당 국민경선이 국민 사랑 경선이 된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중도에 뜻을 접은 동지들에게도 격려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민경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우리 정동영 고문님, 그 동안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한 가운데 어려움을 이기면서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끝까지 국민경선 지킴이로서 자리를 굳건히 지킨 정동영 고문님께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부산과 경기도에도 저는 정 고문께 격려를 부탁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박수만 부탁한 것 아니라 표도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 저를 이겼습니다. 저도 당시에는 정말 당원들의 여유 만만하고 따뜻한 마음 씀씀이에 함께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시샘하는 사람들이 '노무현이 건방떨다 표를 읽었다'. '노무현이 민주당의 신임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하는 비난을 했습니다.

오늘은 정동영 후보에게 격려는 보내주시되 노무현이 신임을 받지 못하는 오해가 없도록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주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관심은 과연 노풍이 꺼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연말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있는 바람이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노풍은 끝까지 간다. 그리고 연말 대선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이름은 노풍이지만 이 바람은 노무현 바람이 아니라 민주당 바람입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다릅니다. 민주당은 과거 수 십년 동안 민주화 운동을 했으며 반독재 타도를 위해 목숨도 바쳤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편에서 정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빛나고 자랑스런 민주당의 전통과 역사가 국민경선을 만들어 냈고 이를 통해 이회창 대세론을 박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저는 꺼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은 우리 정치를 한번 바꿔 보라는 요청을 바람에 실었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소망이 노풍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정치 개혁에 대한 소망이 식기 전에 노풍은 절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권위주의 정치를 청산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지역주의를 청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위주의 정치, 계보정치, 제왕적 1인 지배

등 구시대적 정치를 국민들은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 제왕적 권위를 누리는 사람이 누구이며, 후보들 가운데 막강한 계보를 가진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줄을 세웠으며 측근 밀실정치 했습니까. 바로 민주당이 앞장서서 정치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민주당의 국민경선을 흉내내고 있지만 투표 과정을 보면 가장 힘센 후보 이외에는 대의원 지구당 위원장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한 후보가 70%-80% 득표율을 얻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한나라당은 국민경선 아니라 줄 세우기 경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경선답게 보이려고 표 좀 줄여 달라고 요구해도 제왕적 지도자에 겁이 난 지구당 위원장들은 표를 더욱더 몰아주고 있습니다. 이러니 한나라당에 어떻게 정치개혁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한국 정치 개혁의 첫 번째 목표는 특권의식의 청산입니다. 부정부패 등 각종 부조리도 권력자들의 특권의식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깨끗한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가장 특권의식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아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은 사람 아닙니까.

국세청을 내세워 대선 자금을 모으고 그 심부름 한 의원을 구속시키려고 할 때 이를 방해한 사람이 특권정치인 아닙니까.

우리 민주당도 따가운 채찍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대의를 위해 한국의 미래를 위해 그래도 민주당을 선택하지 한나라당은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되시겠다는 분이 지역주의에 매달려서 되겠습니까. 지역

주의는 극복되어야 합니다. 동서화합을 위해 결단을 내린 광주 시민들이 만국적 욕심을 벗어 던졌습니다.

전 국민이 광주의 결단에 감동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도가 올라가고 노풍이 분 것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분열의 장을 선택하겠습니까, 통합의 장을 선택하겠습니까.

남북대화는 민족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남북대화의 성공이야말로 한국의 미래입니다. 미래 열기 위해 남북대화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 인내를 가지고 햇빛정책을 밀고 나가야 합니다. 밀도 끝도 없는 상호주의 남북 대화의 걸림돌이며 낡은 시대 냉전주의자들의 목소리입니다. 냉전주의 가지고는 한국의 미래 열 수 없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국민들은 노무현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은 역사적 평가를 다시 받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지방자치 선거에서 이겨야 합니다. 새로운 희망 김민석 서울시장 후보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경선이라는 민주주의 정당의 제도의 꽃을 완성시켰습니다. 이는 50년 100년 뒤에도 우리의 자산으로 남을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 되는 정치는 이어질 것입니다.